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1호【루체 제24889호】주제104(2015)년 4월 21일(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적 이 깃들여있는 력사의 땅 속에서 천도개혁이 일어나고있다. 과학기술 전당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속에 이곳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전투장에 휘몰아치는 거세한 비약의 불바람은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 령도와 우리 인민군중건설자들과 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정신이 안아온것이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속성을 돌아보시면서 이곳을 최단기간에 과학의 섬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비범한 예지로 과학기술전당을 21세기 주체전당건설의 결실품으로 일떠세우도록 손잡고 이끄신분도 경제하는 원수님이시며 방대한 규모의 공사를 단숨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혁명적인 대책들을 취해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백두의 천출위인의 웅대한 구상과 한없는 믿음, 세심한 령도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자들과 영웅적투쟁과 위훈장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불가침에 도전하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건설방법들을 려이 창조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맹렬하게 벌리었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이곳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야간직업직대원들의 투쟁과 인민들의 물질생명의 지원사업은 건설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갈수 있도록 뛰어들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전투야말로 령도자와 군인이 뜻도 설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입실단결의 거창한 화폭이다.

과학기술전당은 당장정 일꾼들을 맞이하여 건설하는 대상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과학기술전당 10월의 대추전장에 드러는 빛나는 로력적성물과 마려하지만 이 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전향시키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까.》

속성을 과학의 섬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사업이기에 나라의 깊은 관심속에서 최대한의 속도로 다그쳐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우리 당의 부흥강국건설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이다.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으로 만들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기술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이 함께 하는 애국적 배울수 있는 배움의 전당이다. 자동차들이 쉬임없이 연유공급소에 와서 연유를 공급받고 가는것처럼 사람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전당에 와서 최신과학기술지식을 끊임없이 배워가게 된다. 과학기술전당을 끊임없이 류통시키는 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에 전국 과학,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를 다져서 애국의 열정과 지혜가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과 투쟁기풍의 열지, 군인대단결의 힘이 있다. 애로와 난관이 클수록 애국충

성의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현으로 보여 주고 광범한 배움을 앞당겨오려는것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온 나라 지원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속성전역은 당을 받드는 길에서 일일동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힘이 활활살같이 폭발된 대건설전투로 조국정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전당건설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긍지높은 투쟁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는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건설의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며 위대한 투쟁방식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공사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다. 전국적으로 당장정 일꾼들을 갖도록 완공하여야 할 예산이 많은 오늘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관념으로는 업무조차 베풀수 없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건설과제앞에서 불가침을 모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강당한 정신허, 혁명적단결의 위력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장구한 선군혁명의 길에서 체철화하고 역세게 다져서 애국의 열정과 지혜가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과 투쟁기풍의 열지, 군인대단결의 힘이 있다. 애로와 난관이 클수록 애국충

성의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현으로 보여 주고 광범한 배움을 앞당겨오려는것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온 나라 지원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속성전역은 당을 받드는 길에서 일일동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힘이 활활살같이 폭발된 대건설전투로 조국정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전당건설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긍지높은 투쟁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는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건설의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며 위대한 투쟁방식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공사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다. 전국적으로 당장정 일꾼들을 갖도록 완공하여야 할 예산이 많은 오늘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관념으로는 업무조차 베풀수 없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건설과제앞에서 불가침을 모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강당한 정신허, 혁명적단결의 위력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장구한 선군혁명의 길에서 체철화하고 역세게 다져서 애국의 열정과 지혜가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과 투쟁기풍의 열지, 군인대단결의 힘이 있다. 애로와 난관이 클수록 애국충

성의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현으로 보여 주고 광범한 배움을 앞당겨오려는것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온 나라 지원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속성전역은 당을 받드는 길에서 일일동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힘이 활활살같이 폭발된 대건설전투로 조국정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전당건설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긍지높은 투쟁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는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건설의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며 위대한 투쟁방식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공사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다. 전국적으로 당장정 일꾼들을 갖도록 완공하여야 할 예산이 많은 오늘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관념으로는 업무조차 베풀수 없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건설과제앞에서 불가침을 모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강당한 정신허, 혁명적단결의 위력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장구한 선군혁명의 길에서 체철화하고 역세게 다져서 애국의 열정과 지혜가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과 투쟁기풍의 열지, 군인대단결의 힘이 있다. 애로와 난관이 클수록 애국충

성의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실현으로 보여 주고 광범한 배움을 앞당겨오려는것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온 나라 지원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속성전역은 당을 받드는 길에서 일일동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창조적힘이 활활살같이 폭발된 대건설전투로 조국정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전당건설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긍지높은 투쟁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는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건설의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것은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며 위대한 투쟁방식이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공사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다. 전국적으로 당장정 일꾼들을 갖도록 완공하여야 할 예산이 많은 오늘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관념으로는 업무조차 베풀수 없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건설과제앞에서 불가침을 모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강당한 정신허, 혁명적단결의 위력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장구한 선군혁명의 길에서 체철화하고 역세게 다져서 애국의 열정과 지혜가 있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과 투쟁기풍의 열지, 군인대단결의 힘이 있다. 애로와 난관이 클수록 애국충

성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오늘의 천리마기수가 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중산투쟁의 불길 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오늘 의 중산투쟁은 과학기술의 힘에 의 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지금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와 평양326전선공장, 평양고무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과학기술전당건설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각종 관류와 통나무, 돌전재와 용접봉을 비롯한 건설자재보장을 맡 는 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선 단위들을 본받아 중산돌격전을 파격히 벌려야 한다.

평양시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전당건설사업에 적극 밀려나서야 한다.

지금 속성을 과학의 섬으로 전변 시키기 위한 전투장으로는 매일 수 천명의 청년동맹원들과 녀맹원들이 달려나와 건설자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비치고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성이 어떤 물자들을 안고 건설장 을 찾았으며 힘있는 경제산동활동으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이들이야말로 인민들에게 끝없이 배려해주는 우리 당의 사랑과 온정의 고마움을 알고 약동하는 조국과 호흡을 같이 하는 참된 애국자, 훌륭한 인간들이 다. 건설부문의 과학, 교육기관에서 는 속성개발공사를 과학기술로 담 려를 펴수 있다고 하신 애국의 호소 를 높이 받들고 6만여명의 분파일 원기에서 12만여명의 장제를 생산하 였으며 김책제철소(당시의 로동계 급은 19만여명의 공적능력을 가진 실 사)에서 27만여명의 선철을 뽑아냈다. 오늘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 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는 총성의 열정으로 실장을 펴며 끓어오르는 21 세기의 천리마기수들을 부르는 애국 의 호소, 믿음의 호소이다.

자재보장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

래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치며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제17차 김일성화축전 폐막

【평양 4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13일에 개막되었던 제17차 김일성화축전이 폐막되었다.

축전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광범한 미래를 축복해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추앙과 신뢰의 정으로 하여 원일 대성황을 이루었다.

만민의 온갖을 끌어모아 누리에 단발하는 세계제일의 명화 김일성화축전을 활용하는 평화 건설정상을 수심만명의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순남들이 참가하였다.

이런 축전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대 높이 모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폐막식이 20일 김일성화 축전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최룡해동지, 양철성동지와 관계부, 무역, 성, 중앙기관 일군들, 불멸의 꽃보급원회 회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배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순남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인민무력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등 많은 단위들과 축전에 공헌한

성원들, 모범적인 재배공들, 비건축전가수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김일성화축전상장이 수여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주조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김일성화축전상장을 수여받았다.

김일성화축전조직위원회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제17차 김일성화축전이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여난 불멸의 꽃이다》를 발표하신 10년과 김일성화명명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더욱 성대하고

의의깊은 축전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축전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 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차민친 위인칭송의 꽃축전, 영생축전의 꽃축전이었다는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연설자는 앞으로 김일성화축전을 보다 성대하고 의의있게 조직하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꽃길에 경축하며 불멸의 꽃배와 보급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김일성화가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폐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백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가 만가동

자 강 도 에 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은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들이 만가동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적지침을 보다 성대하고 의의있게 조직하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꽃길에 경축하며 불멸의 꽃배와 보급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김일성화가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폐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자강도에서 물량이 많아지는 데는 애국 전력생산은 늘이도록 기술지도, 자재보장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들었다. 판리국의 일군들은 발전설비들이 비교적 큰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의 동을 높이 올리도록 기술지도, 자재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 고있다.

홍수청년 2호발전소에 내려 간 판리국 기술일군들은 로동자들과 창조적투쟁을 합쳐 3호발전기 퍼자장치의 성능을 높일수 있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투쟁기 풍을 높이 발휘하여 보름동안에 자체로 2호발전기부수를 끝냄으로써 발전소에서 더 많은 전 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성간군 남리발전소에 내려간 판리국 기술일군은 2호발전기 의 수차효율을 높일수 있는 기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발전 설비들을 기술정교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며 전력생산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우시 1호발전소의 로동자들도 총만간의 물량이 많아지는데 맞게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자성강에 계단식으로 일떠선 화평군 중소형발전소들에서도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지방공업공장들과 혁동농장들의 동력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강계시의 북천에 일떠선 계단식 발전소들에서도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판리국의 일군들은 중소형발전소들에서 매우 설비점검과 소 보수, 중보수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발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툄뚜까지 등 세 등

몽금포중심어장에 《바다 만풍가》 높이 올려퍼진다

서해지구 수산부문 어로공들 집중적인 어로전으로 1만여t의 어획고 기록

어로공들은 뜻깊은 올해 어떻게 하나 높이 세운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인민들의 식탁 위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할 한마 음과 신안같이 일떠섰다.

수산부의 양면면 열에 맞게 대성업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하나 를 출어일수를 늘이는데서 찾고 겨울철배수리를 제때에 걸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당, 행정책임일군 들을 비롯한 성의 일군들이 한 개 단위를 맡고 내려가 걸린 문 책을 앞장서서 풀어내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 랑정신이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배수리전투장들에 세차게 막박 찼다. 서해지구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없는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선 체보수와 기관수리를 다그쳤고 식물프기를 비롯한 모든 준비를 실속있게 갖추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문 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

련하여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 해나가야 한다고 한 당중앙위원 회 정적구 화회대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수산일군들은 몽금포 중심어장에서 집중적인 어로전 을 벌릴것을 결심하고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몽금포수역은 까나리를 비롯 한 물고기들의 서식조건이 좋은 곳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에 위한 중심어장의 하나로 일떠섰다.

일찌기 서해의 어정형성과 물 고기회유상태를 꿰뚫어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몽금포수 역을 비롯한 서해의 어정들에서 물고기를 대대적으로 잡도록 하 시고 어로공들의 로동조건, 휴 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기지도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 어주시었다.

몽금포중심어장에서의 집중 적인 어로전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긴 수산성의 일군들 은 지난해보다 앞당겨 물고기잡 이준비가 갖추어지는데 맞게 작 력을 더욱 주도세밀하게 짜고들

면서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벌리 도록 하였다. 어장이 형성되는 데 따라 성에서는 능력이 있는 일 군들로 현장지휘를 조직하고 서해지구 수산부문의 많은 고기 배들이 동시에 집중적인 어로전 에 들어갔다. 특히 큰 작전을 펼쳤다.

각지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 각의 수백척 고기배들이 타고갔 는 몽금포중심어장에서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힘 있게 벌어졌다.

각지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 각의 어로공들은 불리한 날씨에 도 이랑따없이 기망회수를 높이 며 사업소별, 고기배별사회주의 중산경쟁을 벌리었다. 이들은 여 러가지 정황에 대처한 어로방법 을 틀어대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 는 물고기잡이전투를 벌였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수산성의 일군들이 어로공들과 함께 고기배를 타고 바다에서 어황상태를 따져가면서 생산지 역을 기동적으로 짜고들고 그 들의 심장을 불태우는 화선식정

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황해남도수산판리국 책임일군 을 비롯한 서해안의 각 도수산 판리국 일군들도 어정에 진출한 판리국산하 고기배들에 올라 어 로공들의 로력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치밀한 물고기잡이경쟁이 힘 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난해

1만여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당 에 기쁨을 드린 문덕수산사업소 와 운천수산사업소가 앞장에 섰 다. 그뒤를 한천, 남포, 가마로 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수산 사업소들이 바짝 따라섰다.

집중적인 어로전이 시작되어 어획고는 날을 따라 뛰어올라 지난 4월초에만도 하루평균 수

백에 달하였다.

결과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1만여t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건맹이를 배진이 넘치게 실은 운반선과 안강망선들이 만 선기를 휘둘리며 포구로 들어오 고있다.

포구마디에서는 하록천투와

가공전투로 새날이 밝고 따뜻한 수산물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각지로 떠나는 호프한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더 높은 수산물생산성공과 뜻 깊은 10월의 대추전장을 빛내 일 결의밑에 낮과 밤이 따로 없 는 치열한 물고기잡이전투를 벌 리는 서해지구 수산부문 일군들 과 어로공들의 드세한 공격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성공은 계속 뛰어나고있다.

글 특파기자 리승철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백두의 밀림에서 밝아온 이 아침 눈부신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며 솟는다.

지난 18일 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투지대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우리 민족의 넓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인 백두산.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책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투를 빛내어가는 길, 영광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꿰뚫어 이어가는 길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앞장서서 헤치시던 빨찌산 김대장을 보았다.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백두밀림에서 삼도왜적을 벌벌 떨게 하시던 그이께서 혈전의 요연스민 쌍안경을 휘신켄 한손을 높이 드시어 공격명령을 내리신다.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군민을 촉박해 주신다.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봉착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고무해 주신다.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러 조국전군의 길에 오르신 빨찌산 김대장의 그날의 모습을 우리 어찌 추억속에서나 우리를 수 있으랴.

신음하던 조선민족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던 빨찌산 김대장정신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최후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개선문에 아로새겨진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태양창송의 송가르 백두산대국의 하늘가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수령님!이시자 곧 빨찌산이고 빨찌산이자 곧 수령님이십니다. 우리 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수령님을 빨찌산 김대장이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빨찌산 김대장!

그 부름속에 어려온다. 왜적의 정수리에 불벼락을 터지던 통쾌한 그날의 격전장이며 생물을 움켜먹으며 눈보라를 뚫고헤쳐간 고난의 평결이, 쓰러진 전우의 피땀을 시에에 붉은기름을 더으며 눈물삼김인 이름모를 풀겨머 만장대이아기조국을 그리던 잊지 못할 추억지가.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마다에 빨찌산 김대장의 력사가 장엄하게 흐른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실현한 인민들이 낳은 전설적영웅의 불멸의 영웅사시와 더불어 백두산은 거메의 마음속에, 온 세상에 조종의 산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주체36(1947)년 8월 어느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너류기자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수령님은 명성높은 청년장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속에서 전설같은 이야기가 많이 들

었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주실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그때 인민들속에서 내가 승원입지하며 축지법을 쓴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날아오르고 땅속에 들어가며 땅을 주름잡으면서 한 걸음에 천리를 갈수 있었는가고, 이것은 다 인민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유격대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운데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항일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 어떤 병서에

서도 찾아볼수 없는 변희무쌍한 군사행동으로 일제를 쳐부신 항일혈전의 날에 인민은 반만년역사에 처음으로 하늘이 낸 전설적영웅인, 빨찌산 김대장을 우러러 그이께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기를 기원하였었다. 만고의 항쟁사에 새겨진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그대로 억눌려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슬픔을 쓰시어 무산과 청진, 함흥에 나타나 왜놈들을 죽이시었는데 그때 장군님은 보이지 않고 장군님께서 쓰시는 충구

에서 나오는 불빛만 번쩍번쩍하였었다.》, 《김일성장군님은 99가지 변신술을 쓰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식달천기를 내다보시고 적을 치시는 무적의 장수이시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신묘한 재주를 가지시고 같은 시간에 앞산에서도, 뒤산에서도 적을 치시고 동시에도 치고 서에서도 치면서 《동성서적》하시는데 그때마다 왜놈들이 무리로 녹아나간다.》... 적들은 우리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기묘한 전법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었다. 당시 판공군 소대장은 《토벌대들

은 김일성장군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과 맞대들리지만 하면 매번 참패를 당하여 큰 손실을 보곤 하였었다. 후에 모든것을 똑똑히 알게 되어 더욱 놀라게 된것은 그때 그토록 명성이 높았던 김일성장군께서 당시 스물세살의 젊은 나이였다는 점이다. 그분께서는 그처럼 젊은 나이에 벌써 정치군사적재로 온대륙에 명성을 떨치고계셨는데 김일성장군이아말로 회세의 영웅이라고 나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었다.》라고 고백하였었다.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풍란로속 하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빨찌산 김대장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그대로 항일의 전구마다에 수많은 글밭들로 아로새겨졌다.

《빨찌산 김대장 만국의 령수, 《전진모두 일어나 김대장항일군에 합세하라》, 《동포들이여 모두다 김대장주위에 단결하자》...

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 수령님을 칭송하여 시인 조기천은 이렇게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 북천에 새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줄기줄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배부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님다고 백두산두메에서 우러러 떠드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 이것이 어찌 한 시인의 강렬한 심장의 웨침만이라고 하랴.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흥모로 달아오른 삼천만 조선민족의 심장들이 모두 합쳐 터친 진정한 태양창송의 부름이리라. 해방의 그해 11월 5일부 《해방일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민족사적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무기를 잡고 분열히 일어서서 일본의 강직한 야만군대를 대항하여 용전분투 20년!

황막무연 만주의 땅에서 천황의 국경을 돌파하고 북조선일대에서 일본군대를 전멸케 하던 우리의 민족적영웅!

...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요, 진실한 지도자이시다. 8월 15일절에 우리의 민족으로 찬연한 투쟁사를 가졌다면 그 중요한 페이지는 김일성장군의 투쟁에 드리지 아니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이 진정한 지도자를 가졌다면 김일성장군을 첫손가락에 꼽지 아니할수 없을것이다.》

진짜 조선인민이 울고웃으며 열광의 환호를 터치던 그날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하지만 천만년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번 바뀔다 해도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빨찌산이야기는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에 대한 이야기로 백두밀림의 빨찌산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에 불어오지던 백두산 청년장군의 기상,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넘쳐던 백두광명정도의 정기를 그대로 비껴간 오늘날의 빨찌산 김대장의 찬란한 빛깔이 선군조선의 미래를 비추준다.

이 나라의 력사가 그 이름도 빛나는 빨찌산 김대장의 이야기로 끝없이 이어지기에 최후승리는 확정이며 김일성장군이아말로 회세의 영웅이라고 나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백두산에 계시며 우리를 촉박해 주신다. 본사기자 리금분

마침내 아군의 동맹, 마침내 아군의 동맹, 마침내 아군의 동맹, 마침내 아군의 동맹

잊지 못할 명철구회
주체20(1931)년 12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길현 명철구에서 당 및 공작관 부하들의 소집회의를 주지하시었다. 회의에서 회의의 중점으로 된것은 정규진이나 유격진이나 하는 무장투쟁의 형식문제였다. 사실상 이것은 혁명의 승리와 결부되어있는 혁명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현 실태를 두고 사색을 거듭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변희무쌍한 유격진이아말로 우리가 선행해야 할 기본무장투쟁형식이라고 하시면서 국가가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정규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군사기술적이나 량적으로 별다른 무력으로도 강대한 일제침략군과 맞서싸우야 하는것만큼 변희무쌍한 유격진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시었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진의 지원이 있어야만 유격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 기성리론에 중저 부를 찍으시고 이리 그 누구도 내줄수 못한 식민주의해방투쟁의 기본형식으로서 유격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천리헤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 회의에서는 조선민족의 무장투쟁의지가 거듭 확인되었으며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참으로 겨울명철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여 놓은 회의,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장차 조직될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결하는 길을 밝힌 회의였다.

소영자령 전투 (1932년 5월 20일)
이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 밑에 반일인민유격대의 주력부대가 안도현 소영자령에서 벌인 첫 전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갖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의 위력을 시위하고 전투를 통하여 대원들을 단련시키며 남단전쟁에 필요한 군사물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영자령전투를 조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지휘밑에 우리 혁명적무장력이 이룩한 소영자령전투에서의 승리는 군대가 조직되어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발사되었으면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돈화현성 전투 (1932년 9월 2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반일인민유격대가 진행한 첫해 전투들
로 소영자령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이 매복진입에 들어서자 바위에 올라서시면서 사격 명령을 내리시었다. 골짜기가 깨져나갈듯이 총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졌다. 얼마쯤 사격을 하다가 돌격으로 이행한 부대는 단숨에 전투를 결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지휘밑에 우리 혁명적무장력이 이룩한 소영자령전투에서의 승리는 군대가 조직되어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발사되었으면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돈화현성 전투 (1932년 9월 2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1930년대 전반기의 여러 사변가운데서 돈화현성전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돈화현성전투는 9월 2일 새벽 3시에 시작되었다. 이 전투는 반일부대의 연합작전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인민유격대는 남문으로, 반일부대는 서문과 북문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주력방향을 남문으로 정하시었다. 남문앞에 지휘처를 정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부대지휘관들과 함께 전투정황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신속하고도 결단성있게 전투를 지휘하시었다.

성안에 재빨리 돌입한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적들의 지휘처를 습격한 다음 련사판 분판, 경찰분서를 소탕하였다. 돈화현성전투는 반일인민유격대가 반일부대와 협력적으로 일본군을 타살한 첫 현성전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액목현성 전투 (1932년 9월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돈화현 태평산에서 돈화현성전투승리를 축하한 후 연이어 액목현성전투를 벌일 데 대한 현명한 작전적방향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개시신호에 따라 유격대원들과 반일부대원들은 불의에 현성으로 돌입하여 드센

화력타격과 노도와 같은 공격으로 적들을 순간에 제압하고 성시를 해방하였다. 돈화현성전투가 있는지 한주일가량 지나서 벌어진 액목현성전투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그 흥성이 남긴 여운은 컸다. 이 전투의 의의는 하나의 현성을 친대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혁명가들이야말로 반일인민유격대를 키우던 여기는 국제주의자들과는 반일연합전투에서 공동의 적인 일제를 타살하는 데서 일어나 중요한가를 힘있게 확증해내었다. 액목현성전투의 승리는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투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이 일대의 인민들에게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안겨 주었다. **전 광 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서 우리의 항일전쟁사에서 유인대부대의 전형으로 하여 정안군은 유인대의 뒤에서 걸려들었다. 놈들을 쫓아내어 유인대의 특성으로 유인대부대의 매복구역으로 들어서고있었다. 매복구역으로 기어든 적들은 《이런 곳에서 포위에 들면

연길 폭탄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 때의 일이. 당시 간도사람들은 소련의 원조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있었으며 수류탄공장을 지어달라는 청원편지까지 보냈다. 그들은 일제가 유격군거지를 초토화할 흉계에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공격해오는데까지도 수류탄공장에 기대를 걸고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회담도 없이 침묵뿐이었다. 소양정 마흔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작탄강습회를 조직하시고 동민의 각 현의 유격구들에 있던 병기창들에서 자체로 폭약과 작탄을 만들어 내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유격구의 병기창들에서는 작탄제작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커거시 만들어낸 수많은 작탄은 반일인민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의 무장장비를 강화하고 적들을 죽이는데 크게 기여되었다. 왜놈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이 위력한 작탄이 바로 연길폭탄이었다. **새 히 성**

조직원 부대였다. 이들의 무장은 다른 위만군보다 좋았으며 일본인지도관의 지휘를 받고있었다. 제1차 북만원정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우리 수령님을 칭송할 수없는 전설들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만고의 령장 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항일전쟁사의 갈래를 더듬느라면 천변만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범이 걸려 폭파될수 못하고 녹아나온 하던 일만군경들의 아우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적들이 제일 무서워한것은 그였다. 적들이 제일 무서워한것은 그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의 가장 대표적인 유격전법의 하나인 매복전투를 두고 적들이 붙인 이름이었다. 주체24(1935)년 6월 중순경이었다. 사도구참변에 대한 대담으로 정안군을 요정냈을 결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전투에서 유인전과 매복전을 결합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은 정안군은 약질적인 지주, 자본가의 자식들로서 위만군대에 선발하여

신출귀몰 하는 전법
있었다 정안군은 토성안에 틀고앉아 그렇게 사방을 두리번거리었다. 참으로 묘한 지형이었다. 그 골짜기는 들어서기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어려운 함정이었다. 일본인지도관을 겨냥하여 쓰이는 우리 수령님의 총성을 신호로 하여 전투는 시작되었다. 적들은 저항도 변변히 못하고 순식간에 괴멸되었다. 골짜기에는 적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일제가 《무적황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혈군》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정안군은 불과 몇분간의 전투에서 괴멸되고말았다. 로혹산전투에서의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유격전법의 승리였다.

제미없겠는데.》하고 증열거리며 불안스럽게 사방을 두리번거리었다. 참으로 묘한 지형이었다. 그 골짜기는 들어서기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어려운 함정이었다. 일본인지도관을 겨냥하여 쓰이는 우리 수령님의 총성을 신호로 하여 전투는 시작되었다. 적들은 저항도 변변히 못하고 순식간에 괴멸되었다. 골짜기에는 적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일제가 《무적황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혈군》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정안군은 불과 몇분간의 전투에서 괴멸되고말았다. 로혹산전투에서의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유격전법의 승리였다.

적들은 조신인민혁명군이 너무나 갑쪽같이 신출귀몰하고 승천입지하는 묘술을 쓰기때문에 도저히 잡아낼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 력사가 일제히 알지 못하는 유격전과 기발한 살매정법을 창조하신 전설적인 빨찌산 김대장께서 계시어 일제는 반드시 멸망하고 조국해방의 새

아침은 밝아온다는 필승의 신념은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메루리 마냥 넘치게 자리잡았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우리는 유인대부대가 창조하신 유격전법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대가 열이면 열 가지 전법이 나왔고 백번을 싸우면 백가지 전설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피로에서 주동으로 넘어가는 투철한 공격정신으로 어려운 매일수고 고난을 맞받아나가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공격유격전법의 하나였다. 망원전술에 의해 적들은 저들끼리 싸우다가 제풀에 녹아나온 하였다. 수백명의 유격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온데간데 없었는가? 그야말로 귀신이 목할노릇이 아닌가?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너무나 갑쪽같이 신출귀몰하고 승천입지하는 묘술을 쓰기때문에 도저히 잡아낼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 력사가 일제히 알지 못하는 유격전과 기발한 살매정법을 창조하신 전설적인 빨찌산 김대장께서 계시어 일제는 반드시 멸망하고 조국해방의 새

본사기자 한영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다. » 김 정 은

백두의 행군길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길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울린 《혁명군의 노래》 천만군민이 합창한다

뜻깊은 건군절이 다가오고있는 지난 4월 18일 새벽 선군조선의 기상인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하늘땅을 정령 울리는 힘찬 혁명가요의 노래 소리가 터져올랐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 따라 백설을 날리며 거센 솟아오른 백두산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군 혁명전진지대사령관 출신들이 부른 혁명가요 《혁명군의 노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웅한 조선 인민군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다는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지금 뛴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속에 우리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백두산으로의 행군길에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세우며 혁명가요의 구절들을 가슴속에 떠올린다.

《혁명군의 노래》, 보름달, 보름달에는 누구나 감동깊이 들어왔고 너도나도 따라부르던 노래였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인민군원들이 백두산으로 오르면서 부른 이 노래, 항일혁명선열들의 백두의 산이름을 이 혁명가요의 구절들을 새롭게 새기고있다. 항일혁명의 나날 우리 투사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고 그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신념과 의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설한풍 사나운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데 전진시절을 났던 우리 혁명의 원로들입니다.》

부들부들 역세 의지와 강한 힘이 솟구치고 들을수록 끝없는 혁명열, 투쟁열을 새겨안게 하는 수많은 혁명가요들 가운데서 《혁명군의 노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혁명군의 노래》는 항일혁명투쟁이 매우 간고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인 1930년대 중엽에 항일유격대원들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이 노래는 중첩되는 난관과 모진 시련을 다 이겨내면서 오직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백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인한 투지, 혁명적투쟁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하여 당시 동만인대와 함경도의 광범한 지역에서 널리 불려왔다.

노래의 구절마다에는 일련단심 혁명의 승리를 위해 몰바쳐 싸울 굳은 결심을 안고 설한풍 휘몰아치는 험한 산속에서 엄숙한 추위와 굶주림, 모진 간신교를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오직 승리를 확신하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여세를 헤쳐온 항일혁명선열들의 영웅적기상과 숭고한 정신세계가 절절하게 반영되어있다. 유순하면서도 무거운 부를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고 그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신념과 의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설한풍 사나운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데 전진시절을 났던 우리 혁명의 원로들입니다.》

요방전에 커다란 기어를 하였으며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잘 알려져있다.

《지동치듯 몰아치는 거세찬 바람 사정없이 살점을 때여갈 때에, 《지친 다리 끌고서 보보행진코 주린 배를 움켜쥐고 힘을 돌군다》...

이는 결코 어제의 날고였던 엄혹한 현실만이 아니다. 오늘날도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 속에는 어제도 오늘도 레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여세로 간직되어있다.

《가시덤불 험한 길 앞을 막아도 목적하는 혁명위업 이룩해가자,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신념이며 백두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신념은 생명과도 같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사상과 신념의 투쟁이다. 혁명정신은 사상과 신념, 죽어도 혁명신념 바르지 않는 백혈불굴의 정신이 바로 혁명가요 《혁명군의 노래》에 역세 기동처럼 새겨져있는 것이다.

하기에 혁명가요 《혁명군의 노래》는 오늘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혁명투쟁의 교과서와도 같은 거대한 사상예술적강화력을 담고있는 노래이다.

혁명적인 노래는 시대의 상징이며 투쟁의 기치이다.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항일혁명투쟁의 역사적자취를 뜻깊게 되새겨주는 시대의 상징과

도 같은 항일혁명가요들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군기이다.

《혁명군의 노래》가 태어난 1930년대로부터 세월은 흘러 세기는 바뀌었고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혁명정신은 오늘날도 곳곳이 이어지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백년 쓰러지면 백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 것이 바로 조선의 정신이며 기상이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차맛을 알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백두의 메아리가 되어 온 나라를 격동케 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은 떠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정신은 구호나 무의 글발이나 항일 백두산악기자들의 회상기에만 남아서 있어서는 안된다.

사나운 눈보라를 한몸에 맞으면서 백두산에 오르면 혁명의 큰 뜻을 새기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백두산 마루에서 《김정은 걸사옹이!》를 심장부터 터치는 우리 군인들처럼 백두산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혁명군의 노래

1.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천신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며 피와 땀을 흘린자가 그 얼마나

2. 지동치듯 몰아치는 거세찬 바람 사정없이 살점을 때여갈 때에 산림속에 눈깔고 누워 잘 때면 끓는 피는 더욱더 뜨거워진다

3. 지친 다리 끌고서 보보행진코 주린 배를 움켜쥐고 힘을 돌군다 가시덤불 험한 길 앞을 막아도 목적하는 혁명위업 이룩해가자

4. 끓는 피로 맹세한 동지를 잃고서 피롭고도 모진 싸움 해내오다가 우리처럼 떨치는 돌격소리에 공산주의승리의 기 펴릴 날이다

우 정 혁

주작봉마루에 빛나는 금별메달

《혁명렬사들》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친필이 빛나는 주작봉마루에 우리 서있다.

붉은 기폭을 배경으로, 백두밀림에서의 그 자세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응시하여 굳건히 서있는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의 영성의 모습, 그들앞에 빛나는 금별메달,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인다. 그리고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눈보라 만리, 혈전만리를 헤쳐나갈 때에 자기들의 꽃다운 생을 아낌없이 바친 선열들의 모습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비록 가슴에 영웅의 금별메달은 달지 않았어도 모두 자랑스러운 영웅들이였습니다.》

원수들의 모진 악행속에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친 최희숙동지 그리고 마동희동지, 권영벽동지, 리계순동지... 그들이 생을 마치는 마지막순간에 바란것은 무엇이었던가.

그 어떤 명예인가, 보수인가, 아너인가.

오로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신념이었고 사령관동지의 그 품속에 부강할 내 조국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가슴에 훈장 하나 달아보지 못했지만 웃으며 갔다. 그들의 반신상에는 영웅메달이 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은성속에 영웅적위훈의 첫 세대로 영광의 단상에 올랐다.

언제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대성산혁명렬사들을 돌아보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희생된 혁명렬사들은 나라가 없던 탓으로 영웅칭호를 수여받지 못하였지 그들이 다 영웅들이라고, 공화국영웅메달을 일부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에 달아주는것보다 화환전대중

가슴에 절대불변의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수령은 곧 조국이고 혁명이 승리이다. 이런 신념을 안고 수령을 일련단심 믿고 따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오직 우리 인민의 품도자의 형, 영웅의 금별메달로 빛나는 영성의 품안에서 영성하는 영웅으로 자라나수 있는 것들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혁명렬사들이 빛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비록 가슴에 영웅의 금별메달은 달지 않았어도 모두 자랑스러운 영웅들이였습니다.》

천만군민의 사상정신적재보

《혁명렬사들》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친필이 빛나는 주작봉마루에 우리 서있다.

붉은 기폭을 배경으로, 백두밀림에서의 그 자세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응시하여 굳건히 서있는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의 영성의 모습, 그들앞에 빛나는 금별메달,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인다. 그리고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눈보라 만리, 혈전만리를 헤쳐나갈 때에 자기들의 꽃다운 생을 아낌없이 바친 선열들의 모습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비록 가슴에 영웅의 금별메달은 달지 않았어도 모두 자랑스러운 영웅들이였습니다.》

원수들의 모진 악행속에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친 최희숙동지 그리고 마동희동지, 권영벽동지, 리계순동지... 그들이 생을 마치는 마지막순간에 바란것은 무엇이었던가.

오늘도 메아리치는 투사들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설산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년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불굴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명인들이 있고 그들마다 제나라의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백두의 설한풍을 헤쳐며 강도 일제를 쳐부신 우리 혁명의 1세대인 항일투사들처럼 투철한 신념과 고결한 인생관의 체현자, 참된 인간들은 찾아보기 힘들며 그들과 같이 후대들에게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가 되는 말을 남긴 사람들도 드물다. 건국한 수령절사옹위정신과 혁명승리에 대한 투철한 믿음, 조국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적투쟁, 고결한 인생관으로 충만된 항일혁명선열들의 신념의 목소리를 우리 다같이 새겨보자.

《사명부를 보취하는것은 곧 조선혁명의 신장을 보취하는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는 여기서 이대사나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무한히 충실할뿐 아니라 사령관동지의 안전을 보취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야 하오.》(오중훈)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목소리가 보인다!》(최희숙)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십시오. 조국은 살아있고 인민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승리 만세!》(박길중)

《저는 쌀 한알을 지고왔다가 몇십이나 되는 혁명적투쟁을 지고갑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사명관을 주십시오. 지역을 하나 떼서 맡겨주면 그 지역안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사는 모든 마을마다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겠습니다.》(리계순)

《내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되더라도 끝까지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리라라는것을 믿어주시시오.》(권영벽)

《나는 비록 죽지만 조선인민 혁명군은 견재하며 그 사령관도 견재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을 타살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될 날은 멀지 않아 온다. 모두가 일지단결하여 적의 목숨을 박차고 만일향전에 떨쳐나서라!》(리계순)

《군의동무, 내 생명을 5분만 찾아주세요!... (참모장에게)내대신 동무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해줄것을 부탁하오.》(최춘국)

《어저 그뿐이랴. 참나무뿌리가 몸에 박히는 순간에도 마지막힘을 모아 《조선혁명만세!》, 《내성해방 만세!》를

소리높이 웨친 안순화동지를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간직하였던 혁명신념, 혁명적기개는 오늘날 우리의 심장속을 울린다.

자기 개인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조국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은 항일혁명투사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한 투쟁과 멀어진 삶이란 없었으며 그들이 흘린 피와 땀, 그들이 바친 청춘과 생명이 모두 조국과 이당와 있었었다. 나라찾는 피 어린 투쟁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한몸바치는데 개인이 리의과 부귀영화 위한 삶보다 더 바람있고 값높은 삶이며 행복이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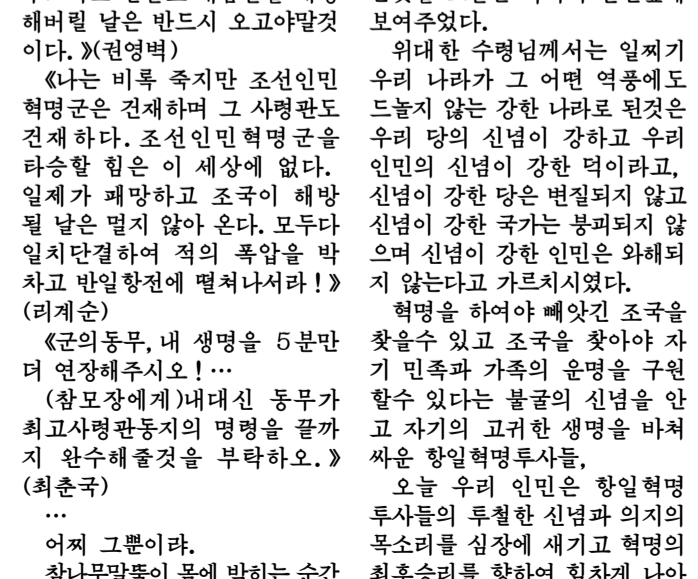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역경에도 드는지 않는 강한 나라로 된것은 우리 당의 신념이 강하고 우리 인민의 신념이 강한 덕이었고, 신념이 강한 당은 번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외侮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시었다.

혁명을 위하여 빼앗긴 조국을 찾을수 있고 조국을 찾아야 자기 민족과 가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불굴의 신념을 안고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 오늘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목소리를 심장에 새기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회상기회를 통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평양장동화기구공장에서



회상기회를 통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백두의 칼바람맛을 뼈에 새기자

백두의 눈보라가 폭풍치는 속으로 붉은기를 추켜는 대오가 힘차게 나아간다. 바로 이 길이다. 항일의 혁명투사들이 뼈를 깎는 추위, 모진 굶주림속에서도 강도 일제를 쳐부신 그 뜻이 이어간 길, 백두의 위력보다 더 강한 백두의 혁명정신이 태어난 길! 이 길은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며 모호오르시는 길, 온 나라 천만군민을 백두산정령으로 불러주시는 려사의 길이 아닌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정신은 구호나 무의 글발이나 항일백두산악기자들의 회상기만 있어서 배와 살로, 생명으로 체질화할수 없다. 투사들의 혁명신념, 혁명정신이 어떤 백두산의 진차맛은 백두의 칼바람맛이다. 바로 며칠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람이 초당 25m를 불어치는 백두산정령에 거센히 서서서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셨었다. 그러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백두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

보물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 백두의 칼바람맛을 아는것이 천만군민의 지향과 열망으로 된 우리 시대에 태어난 이 노래를 부르며 어서 가자,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우리모두 백두산에 오르고올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맛을 뼈에 새기자. 본사기자

혁명의 수뇌부가 있고서야 혁명가의 참다운 삶과 행복이 있다는것이 우리 시대 선군혁명전사들의 고결한 인생관이며 혁명적불변의 신념과 의지이다. 지난해 1월 마두산혁명전진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민족 위하여》 등의 구호문헌을 보시고 항일혁명선열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사상정신적중요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주체혁명위업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갈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신념과 의지의 리정표를 여세로 새워주고있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이 신념의 글발들을 고귀한 념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어언 혁명의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헤쳐나갈 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선군대양의 불멸의 존함은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 승리와 영광의 상징

시 대 와 력 사 의 대 답

사람들은 전혀 불가능한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기에 기적을 낳았다고 말하곤 한다. 사정에 처했던 한 인간이 죽음을 려고 일어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생사공망을 판가리하는 극단한 계선에 놓였던 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의 길에 들어선것은 두말할것 없이 기적이다.

우리 공화국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강성부흥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사주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기적중의 기적, 장구한 사회발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력사의 기적이다. 우리 나라에 그 무엇이 없거나 풍부하여 자랑할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이 친척 조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나 미숙적인 힘을 가지고있어 생경것도 아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온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 희세의 정치원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그이시야말로 신화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권일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 20세기 90년대초부터 21세기 10년대초까지, 돌이켜보면 가장 복잡하고 간고한 력사적시기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 이 지배와 패권의 칼도마루에 수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울려놓고 마구 관도질하던 때였다. 미국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본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의 본보

기»로 군림하여 우리의 행성을 좌우지해 왔다. 생존하려면 미국이 때주는 «처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고 변형하려면 미국의 «원조»를가미에 별수없이 목을 들이밀어야 했다. 시대와 굴종은 세계적추세로, 자본주의에 더 나아가는것은 시대적흐름인듯이 되었다. 이에 도전하면 죽어야 하였다. 페르샤반전쟁으로부터 발칸전쟁,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크고작은 전쟁들이 모두 미국에 의해 저질러졌다. 핵무기를 마구 휘두르며 전쟁을 일삼고 경제제재와 봉쇄로 목을 조이는 그 무지막한 힘앞에 많은 나라들이 공포에 떨었고 말라를 앞세우고 들이대는 흉악한 모략책동에 비참하게 죽어갔다. 세계정치지도에서 나라들의 이름이 적지 않게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들이 려운 울렸다. 나라들의 국경도 자주 바뀌었다. 말그대로 그전까지 흘려온 력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려세우는 사태였다. 그속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던것이 조선의 운명이었다.

조선은 과연 어떻게 필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려고 모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력력량을 총동원하였다. 우리를 동정하는 나라들도 조선이 미국의 압박에 넘어가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열천대 달천 개라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였다. 자연재해가 또 겹치고 이로서 말할수 없는 엄혹한 경제난관이 조성되었다.

생사공망을 가르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것이 바로 선군의 기적이었다. 인류는 말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수많은 단어들과 형상적표현들을 만들어왔다.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언어창고는 더욱더 풍부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인류 력사 전개간에 선군이라는 말은 없었다. 선군을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렬강과의 첨예한 대결상대에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모든것

을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양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시대이다. 선군혁명사상!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을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때 대한 그 사상은 다음 아닌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명도과정에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신것이였다.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살판치는 오늘날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선군혁명사상을 자주위업수행의 지도적지침, 백색의 기지로 틀어쥐고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사상과 리념은 정치를 통하여 실현되며 정치는 인민대중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우리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적으로 정립하시였다. 력사에는 한때는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정치방식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라는 정치방식은 없다.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선군이라는 만능의 보검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엄혹하였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주저없이 않고 조국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혁명의 진취력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부강번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앞을 내다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 펼쳐진 력사의 기적,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심혈과 끊임없는 로고의 산물이었다. 우리 나라 최철연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자랑스런 창조물들이 일그러진 곳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발자취들이 아로새겨져있다. 얼마나 많은 혁명일화들이 생겨났는가. 독감과 폐기법에 대한 이야기와 단발술

을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양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시대이다. 선군혁명사상!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을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때 대한 그 사상은 다음 아닌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명도과정에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신것이였다.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살판치는 오늘날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선군혁명사상을 자주위업수행의 지도적지침, 백색의 기지로 틀어쥐고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사상과 리념은 정치를 통하여 실현되며 정치는 인민대중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우리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적으로 정립하시였다. 력사에는 한때는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정치방식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라는 정치방식은 없다.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선군이라는 만능의 보검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엄혹하였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주저없이 않고 조국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혁명의 진취력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부강번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앞을 내다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 펼쳐진 력사의 기적,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심혈과 끊임없는 로고의 산물이었다. 우리 나라 최철연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자랑스런 창조물들이 일그러진 곳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발자취들이 아로새겨져있다. 얼마나 많은 혁명일화들이 생겨났는가. 독감과 폐기법에 대한 이야기와 단발술

《저는 김정일장군의 부관입니다》

주제 74(1985)년 8월 이전 소련의 원동군 판구 사령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그는 영광스럽게도 절세의 위인인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조선에서는 김정일지도자로서, 저는 이제부터 김정일장군, 당의 부관이 되겠습니다. 당의 부관이 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물러나 부관의 자리에 앉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가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시며 앞에 나와앉으라고 저를 말씀하시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저는 김정일장군의 부관입니다.»** 정명 스스로 따르고 흠모하는 마음의 분출이었다.

《고인물, 평범하고 겸손한 말이지만 그속에는 수렁을 밟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있습니다. 이것은 천 에스빠나공산당 총서기 까릴요가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깊이 감복하여 한 말이다. 언젠가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만수대언덕에 모여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주체사상탑, 개신문의 높이에 대해 우리 일군에게 묻는적이 있었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듣고나 까릴요는 **«빠라에 있는 개신문보다 바랄바없이 높습니다. 김정일주석님의 존엄은 권위와 일치하게 주석님의 동상도 최고의 높이에서 모셔졌다.»**고 하면서 수자들을 거듭 되뇌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기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을 받는다는 말이 되자고 하시며 정력적이었었다.

《세계사적의의를 가진것으로 하여 온 지구를 뒤덮은 두 중대기적, 바로 여기에 김정일명도께서 선군정치를 하시여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영웅의 위대함이 있고 세계와 인류앞에 바치신 업적의 거대함이 있다고 감히 주장하게 된다. 김정일! 그 존함은 불세출의 선군대양의 빛바림이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령의 위인장으로도 높이 모시고있는 한 조선은 언제나 백색운명을 펼쳐갈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일어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기록한 시대와 력사의 대답이다. 본사기자 리경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대성인

주제 90(2001)년 8월 로씨야편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시고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쾰른-베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박물관을 참관하시였다. 박물관의 창설경위와 운영에 대해 로씨야의 고인물들이 들려주었다. 그들은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어느 한방에 들어서는 안대자가 미처 해설을 헤드리기도 전에 쾰른1세로부터 하고 말씀하시기도 어느 한방에 들어서시는 에카테리나2세요라고 우리 일군들에게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였다. 그때마나 안대자는 물론 동행하던 로씨야의 고인물들도 몹시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 체재이실뿐 아니라 력사에도 정통하신 위인종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상봉한 로씨야의 부견대령도 김정일동지는 로씨야에 대해 자기 나라의 정치인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고 경탄을 감지 못해하였다. **림원**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

《조선은 오늘날 태양의 나라로 세계에 우뚝 솟아 천하를 밝게 비추며 자주시대를 선언하고있다. 인류는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지구변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을 외면하던 서방세계가 오늘을 수을 다투어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일들이다. 이것은 국제김일성상사화, 국제김일성상사화 시기까지 언뜻 비추어났다가 2001년에 온(21세기)의 김정일정치라는 제목으로 된 글의 한 대목이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해 인류는 조선은 축으로 세계가 도는 [지구변동]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주제 89(2000)년 1월 서유럽에서 서유럽에 이따라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니 12월에는 영국이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외신들은 우리 나라와 영구사회의 외교관계설정이 국제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세계발전의 반영이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다음해 1월에는 네덜란드, 벨지크가, 2월에는 에스빠나, 3월에는 도이힐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지난 시기 유럽동맹나라들은 우리의 정치제도와 사상을 문제로 삼아 우리 나라와의 관계수립을 외면하거나 반대하여왔다. 그들속에는 우리를 적대시하던 나라들도 있다. 그들은 지어 우리를 고립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합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길에 나선것은 세계정치무대에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제 90(2001)년 5월 유럽동맹 최고기구대표단의 처음으로 들은 우리 나라 방문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유럽동맹 최고기구대표단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현 세계정치흐름의 기본방향을 명철히

반과 세계인사들은 위대한 현대의 정치가, 《리상적인 국가지도자》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의 특출한 정치적외교의 약이 조선은 세계에 빛을 뿌리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 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지나고계시는 높은 권위는 그 누구도 견줄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허물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권위이며 영원불멸한 권위이다. 여기에 세계에 들어와 로씨야의 한 연구집단은 현 세계의 10대 명인 중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제일 첫자리에 모시고 미국잡지 《타임》까지도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훌륭한 정치가로 칭송하였다. 정령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호모를 받고계시는 절세의 위인이다. **김철룡**

《조선은 오늘날 태양의 나라로 세계에 우뚝 솟아 천하를 밝게 비추며 자주시대를 선언하고있다. 인류는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지구변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을 외면하던 서방세계가 오늘을 수을 다투어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일들이다. 이것은 국제김일성상사화, 국제김일성상사화 시기까지 언뜻 비추어났다가 2001년에 온(21세기)의 김정일정치라는 제목으로 된 글의 한 대목이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해 인류는 조선은 축으로 세계가 도는 [지구변동]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주제 89(2000)년 1월 서유럽에서 서유럽에 이따라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니 12월에는 영국이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외신들은 우리 나라와 영구사회의 외교관계설정이 국제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세계발전의 반영이라고

《조선은 오늘날 태양의 나라로 세계에 우뚝 솟아 천하를 밝게 비추며 자주시대를 선언하고있다. 인류는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지구변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을 외면하던 서방세계가 오늘을 수을 다투어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일들이다. 이것은 국제김일성상사화, 국제김일성상사화 시기까지 언뜻 비추어났다가 2001년에 온(21세기)의 김정일정치라는 제목으로 된 글의 한 대목이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해 인류는 조선은 축으로 세계가 도는 [지구변동]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주제 89(2000)년 1월 서유럽에서 서유럽에 이따라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니 12월에는 영국이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외신들은 우리 나라와 영구사회의 외교관계설정이 국제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세계발전의 반영이라고

《조선은 오늘날 태양의 나라로 세계에 우뚝 솟아 천하를 밝게 비추며 자주시대를 선언하고있다. 인류는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지구변동]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을 외면하던 서방세계가 오늘을 수을 다투어 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일들이다. 이것은 국제김일성상사화, 국제김일성상사화 시기까지 언뜻 비추어났다가 2001년에 온(21세기)의 김정일정치라는 제목으로 된 글의 한 대목이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해 인류는 조선은 축으로 세계가 도는 [지구변동]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주제 89(2000)년 1월 서유럽에서 서유럽에 이따라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니 12월에는 영국이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외신들은 우리 나라와 영구사회의 외교관계설정이 국제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세계발전의 반영이라고

로씨야 대통령

국방강화는 나라의 안정과 자주적발전의 담보이라고 언명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9일 고급군관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안정과 자주적발전의 담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군건설과 국방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시종일관하여 진행

벌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로씨야의 자주적이며 안전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공민들의 평화롭고 평온한 생활을 위한 담보라고 말하였다. 범보호기관들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내구성립군들이 사회질서를 강화할뿐 아니라 범죄와 부정부패 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또한 내부군이 로씨야의 평도안정과 헌법제도를 수호하는데 부재있는 기여를 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2일 한 회의에서 언명하면서 평화적핵력을 포기하지 않고 수호해 나갈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관과 령장들사이의 핵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관 정부는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평화적핵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모든 핵성상들이 최종핵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리행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9일 텔레비전방송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제재를 전면철폐할것을 미국과 서방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관정부의 목표는 령장들과의 핵관련회담에서 나라의 평화적핵력을 수호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서방의 모든 제재가 철폐되지 않는 한 이관은 최종합의에 서명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이관부대통령이며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인 알리 아크바르 샬레히가 9일 한 방송연설에서 평화적핵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관 핵시설들의 가동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평화적인 핵연구와 개발을 계속 추진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령장들이 최종합의와 관련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이관정부는 20% 수준의 농축우라늄 생산을 재개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그는 이번 핵협상에서 이관의 핵개발의 정당성이 증명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관은 국제법에 따라 핵에너지기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할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731부대의 생체실험행 규탄 일본학자들이 최근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감행한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행을 강력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얼마전 731부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하였다는데 증언자들이 또다시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그들은 구일본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그 무엇보다도 범죄로 가리울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국의 계속되는 력사외국행위가 나라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대상으로 무참히 살해한 데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회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의료보건봉사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사들과 파과현체메게회실행위원회가 12일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감행한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행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특별행사를 열고 731부대 근무자들의 증언 등 관련자료들을 공개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로씨야에서 로씨야의 서부군관구에서 최근 기계화보병들의 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약 400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으며 30여대의 군사 및 특수기술기재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전투기술기재를 모방한 이동목표를 격과하고 가상적인 적군부대들을 소멸하였다. 서부군관구 공보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인 디아에서** 인디아에서 16일 동부 오리사주 앞바다에 있는 시험장에서 자재로 개발한 [아그니-3]지대지미사일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1.5t의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 **탄 자나에서** 탄자니아에서 최근 테로반대투쟁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14일 이 나라 경찰은 모로고로주의 테로조직들을 벌려 10명의 테로분자들을 체포하고 폭발물과 기폭장치들을 압수하였다.

브라질에서 커피수확 가나에서 가나에서 지난해 금생산량이 410만oz(온스)에 달하였다. 나라이는 금이 광업총생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이 나라 정부는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최근 녹색군출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건물중 80%를 녹색건축물로 개조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네르기 및 물

결약, 환경보호, 실내환경보장 등 5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에네르기를 10%이상 절약할 때 록색건물로 인정하는것을 기준으로 세웠다. 정부는 록색건축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자금을 들이는 한편 법적제도도 강화하고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2300동 이상의 록색건물이 있는데 그 건축면적이 도합 6700만㎡로서 나라의 총건축면적의 27%에 해당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항의시위와 파업, 집회》 미국의 전군각지에서 15일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식료부문 근로자들의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들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식료회사들의 그릇된 정치적 자기들의 생활이 더욱 열악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16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광부들의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4000명의 광부들과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부당한 구실비에 광산을 사영화하려는 당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시위로 주요도들이 차단되어 교통이 혼란에 빠졌다. -보르두양의 리스봉에서 15일과 16일 테이이피공화국회사와 씨리철회회사속 근로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은 채무위기를 해소한다는 구실비에 경영권을 사영화시켜달라며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 파업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파업으로 려

창운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프랑스의 전군각지에서 9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파업과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차운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프랑스의 전군각지에서 9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파업과 시위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파업과 시위들은 30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시내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자기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파업과 시위로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철차와 버스운행이 취소되는 등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